

<표 1> '11년 4분기 및 '12년 1분기 전체 상장사 대비 콘텐츠업체(상장사) 유동비율
(단위 : 억원)

구 분	콘텐츠업체(상장사)		전체상장사)	
	2011년 4분기	2012년 1분기	2011년 4분기	2012년 1분기
유동자산	130,922.2	127,782.1	4,267,475.0	4,403,304.0
유동부채	72,433.7	72,535.9	3,713,988.0	3,830,007.0
유동비율	180.7%	176.2%	114.9%	114.9%

- '12년 1분기 전체 상장사 대비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의 유동비율²⁾은 61.3%p 높은 176.2%
 -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유동비율은 전분기대비 4.5%p 하락

<표 2> '11년 1분기~'12년 1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유동비율 추이
(단위 : %, %p)

구분	2011년 1분기	2011년 2분기	2011년 3분기	2011년 4분기	2012년 1분기	2012년 1분기 전년동기증감
전체	202.4%	184.5%	195.7%	180.7%	176.2%	△26.3%p
게임	299.9%	275.8%	288.8%	266.0%	254.2%	△45.7%p
지식정보	269.9%	288.3%	310.9%	280.2%	265.0%	△4.9%p
출판	202.8%	202.4%	198.2%	127.0%	128.4%	△74.4%p
방송	171.3%	133.8%	161.6%	169.1%	138.5%	△32.7%p
광고	161.0%	152.3%	157.7%	146.7%	152.7%	△8.4%p
영화	84.5%	80.0%	69.3%	75.7%	78.6%	△6.0%p
음악	191.4%	171.5%	197.2%	225.6%	261.1%	69.7%p
애니메이션/ 캐릭터	135.2%	115.3%	132.4%	114.6%	113.8%	△21.4%p

- 전체 콘텐츠산업 상장사의 '12년 1분기 유동비율은 176.2%로 전년동기대비 26.3%p 감소
 - '11년 1분기 유동비율은 202.4%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하락세. '12년 1분기에는 전분기대비 4.5%p 하락. '11년 4분기에 비해 다소 낮은 유동비율을 보이면서 유동성리스크 상승세
 - ※ 유동비율은 단기채무지불 능력의 평가지표로서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, 통상 200% 이하일 경우 해당 기업이 일정부분 유동성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
 - 게임 및 지식정보의 '12년 1분기 유동비율은 각각 254.2%, 265.0%로 다른

1)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68사 중 635사

2) 유동비율 = 유동자산/유동부채×100 : 단기채무지급능력 파악 지표

분야에 비해 양호하나 '11년 1분기 이후 하락세이며, 게임은 '12년 1분기 전분기대비 11.8%p 하락. 지식정보는 전분기대비 15.2%p 하락

- 음악의 '12년 1분기 유동비율은 261.1%로 전년동기대비 69.7%p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35.5%p 상승. '11년 1분기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

※ 출판, 방송, 광고, 애니메이션/캐릭터 '12년 1분기 유동비율은 각각 128.4%, 138.5%, 152.7%, 113.8%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74.4%p 감소, 32.7%p 감소, 8.4%p 감소, 21.4%p 다소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일부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'11년 1분기 이후 전반적 하락세

※ 영화 '12년 1분기 유동비율은 78.6%로 전분기대비 2.9%p 상승하는 등 약간 호전되고 있으나 전년동기대비 6.0%p 감소하는 등 '11년 1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콘텐츠산업 유동비율 중 가장 낮은 수준